



# 교육학

홍의일 편저

# 머 리 스 말

지금,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교사가 된다’는 것에  
직업의식, 가치관과 신념, 인생과 경력관리 등을 생각할  
여유가 있겠는가. 참으로 아이러니 하게도 그러한 중차대한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 모두 사치스런 낭만이  
되어버렸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임용 후보자에  
선정되어야 하는 데, 그 시험 합격이라는 현실이 모든  
우선적인 가치들을 퇴색시키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서 교육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대부분이  
교원임용 후보자 경쟁시험을 치르려는 사람들 일 것이다.  
시험을 위해서, 그것도 학점을 위한 시험이 아닌, 합격과  
불합격을 판가름 하는 시험을 위해서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교육학이 학문이나 교양이 아니라, 그저  
도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이 책의 독자에게 이 책과 그 내용은  
학문도 교양도 아닌, 그저 처치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육학이 그저  
해결해야 될 골칫거리가 되다니, 생각해 보면 한심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 현실은  
우리를 얹어서 끌고나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 나온  
결론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전략 포인트이며, 이 전략을  
채택함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스스로 자기 학습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첫째,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시험의 득점 목표를 최대 17점만 잡아라.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지 교육학 고득점이 아니다. 20점짜리 교육학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교육학에 투자해도 20점은 불가능하고, 18~19점정도 조차도 논술형 시험에 능숙한 사람이거나, 극한의 천운이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임용시험 합부를 결정짓는 전공과목에서는 한 문제만으로도 3~5점씩의 차이가 난다. 교육학 1~2점을 제쳐 두고 교육학에 들어가는 자원투입량을 전공으로 돌리면 전공과목에서 20점도 더 발굴 할 수 있다.

둘째,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육학 시험의 득점 목표를 최소 17점은 잡아라.

어떻든지 교육학을 포기하고 합격 할 수는 없다. 만일 별도의 교육학 공부를 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본다면 최소 얻을 수 있는 기본 점수라는 것이 거의 없다. 논술의 형식에 주는 점수조차도 뭔가 내용을 채워야 형식도 나오는 것이지만 문제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다면, 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도 전혀 없다. 그래서 교육학을 제쳐두고 임용시험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교육학 공부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학 득점 목표를 자원투자 대비 학습 효율이 가장 높은 17점으로 하고, 그 이후 득점의 고원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자원투입을 전공으로 돌리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 다 못한 말이 아쉬운-

# 책 차 례



## 교육학

홍의일

제1책	교육철학	7
제2책	교육사	7
제3책	교육사회학	
제4책	교육과정	
제5책	교육심리	
제6책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제7책	생활지도 및 상담	
제8책	교육평가 및 통계	
제9책	교육행정	



## Eduzip *essay*

박진영 : 학교에서는 실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는 수학을 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요?

최교사 : 수학공부가 당장 쓸모는 없어 보여도 논리력을  
길러주어 그 능력을 장래 여러 가지 일에 발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지. 마치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력이 길러져서 힘든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

보기 에 나타난 최교사의 견해를 지식의 형식의 개념으로  
논할 수 있다. [2006]

**피** 터스가 말하는 지식의 형식은 지적 안목을 통하여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여기에는 지적안목을 가지게  
하는 개념체계가 있어 이를 전수받은 인간은 여러 학문으로  
분화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식의 형식은 인간다운 삶의 형식을 가능하게 한다. 지식의  
형식에는 인간이 세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게 해주는  
인간의 경험이 담겨있는 것으로 학습자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진다. 피터스(Peters)는 지식의 형식을 도덕적 판단, 형식  
논리학과 수학, 자연과학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한 이해, 심미적 경험,  
종교적 주장, 철학적 이해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형식이 가지는 의의는 로크의 형식도야설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보기에서 최교사의 견해는 수학적 지식의 형식성을 말하는  
것이다.



## Eduzip *essay*

(가)

OECD 교육혁신센터(CERI)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정규 교육을 마친 성인이 언제든지 직업능력 향상과 갱신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학교교육 시스템과 직업능력 계발교육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교육체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성인의 생산성 증진과 지속인 고용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과 일 사이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한다.

(나)

노울즈(M. Knowles)가 제안한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대비된다. 이것은 학습자의 자율성 및 자기 주도성, 학습에서의 경험, 현장 중심의 학습 등을 중시한다. [2013]

위의 (가)와 (나)에 적합한 교육의 개념에 대해 논 할 수 있다.

**성** 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제시문의 (가)는  
순환교육(recurrent education)이며, (나)는

안드라고지(andragogy)에 대한 것이다.

순환교육은 기초교육 이후의 모든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교육전략으로 교육을 개인의 생애에 걸쳐 순환하는 방식으로 분산하는 것으로 순환교육 모형 하의 교육체제는 교육, 노동, 은퇴가 여러 가지 순서로 조합되는 새로운 생활패턴을 도모하고자 한다.

안드라고지는 페다고지에 대응한 용어로 성인(Andros)의 학습을 돕는(Agogos) 교육을 의미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특징은 학습자의 경험이 학습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고 주도해 나가는 학습 상황, 과정과 과업중심, 문제중심, 생활중심의 성향을 보인다. 이러한 순환교육과 성인교육의 개념은 평생교육의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Eduzip essay

철수는 서울 중심지의 작은 셋집에서 다섯 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생이다. 부모님의 학력은 중졸이고 수입은 넉넉하지 않지만 화목한 가족 관계는 이웃의 모범이 될 정도이다. 철수는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으며, 작년에는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 에피소드를 콜만(Coleman)의 사회자본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개념에 기초하여 철수네 가정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강약 정도를 논할 수 있다. [2008]

**콜** 만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가족 배경을 3가지 자본으로 설명한다.

첫째는 경제적 자본으로 가족의 부나 소득으로 측정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도울 수 있는 부모들의 물질적 지원능력이다. 둘째는 인적자본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자녀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인지적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로 사회적 자본으로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이다. 이는 가족의 규모,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취업여부, 부모, 자녀 들 간의 관계인 가족 내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의 가족 밖의 사회적 자본이 있다.

주어진 에피소드에서 철수는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비해, 가족 내 화목, 좋은 이웃관계, 학교 내에서 성취 등의 사회적 자본이 강한 현상을 보인다.



## Eduzip *essay*

“그 학생은 학창 시절 말썽을 많이 피웠지. 비슷한 또래들과 물러다니면서 싸움도 자주 하고, 각종 교칙을 밥 먹듯이 위반했어. 수업을 시시하다고 하면서 방해하기도 하고, 공부 잘 하는 애들을 계집애 같다고 놀려 대기도 했어. 반면에 자기 부류의 애들은 사내답다며 우쭐댔지. 자기는 육체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처럼 사나이답게 살고 싶다고 했지. 나중에 보니 그 학생은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육체노동직을 선택하더라고”

위와 같은 사례에서 교사가 회고하는 학생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교육과정의 사회학이론의 의의를 논할 수 있다. [2011]

**원** 리스(Willis)는 참여관찰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학생들은 어떻게 노동계급 직업을 택하게 되는가?’에 대해 학교에 저항문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저항이론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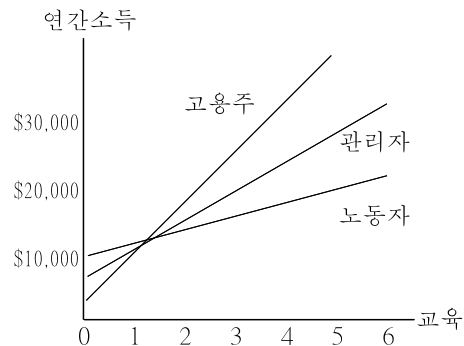
즉 학생들은 학교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드리거나 학교의 구조 속에서 종속 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를 구성하는 자율적 존재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의 존재이유인 ‘학교를 공부시키는 일’을 부정하고 학교 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조의 모순에 대항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교는 유용한 도구이며, 교육의 사회구조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 Eduzip essay

다음은 카노이(Carnoy)의 교육수익률이다. 이 모형을 통해 사회계층을 형성하는 요인에 대해 교육의 기능을 논할 수 있다.



카 노이는 교육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증가한다는 교육수익률을 통해서 교육이 사회계층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연구했다. 그 결과 교육은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계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재생산하며, 때로는 불평등을 더욱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교육수익률에 대한 조사에서 교육의 수익은 노동계급보다는 관리자 계급에서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긴 한데, 계급마다 그 기울기가 다르다. 상위계층일수록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계층에 따라 교육받는 정도가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초기에는 중등교육이 별로 없다가 보편화되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하층이 다니고 지배층은 고등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평등 재생산론은 직업, 명예 등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오직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전제되었고, 교육이 마치 계급구조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 Eduzip *essay*

(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사의 희망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또 공동선 때문에 자기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배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규칙과 규정 및 관례에 따르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사소한 좌절감을 극복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획과 정책이 비합리적이고 불분명할지라도 그것에 따르는 것을 배운다. 다른 사회적기관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세상이 다 그런 거야.'라고 말하는 것을 배운다. -잭슨

(나) 왜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4년, 수학을 2년, 과학을 1~2년, 역사와 사회를 2~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르치는가? 왜 중등학교에서 법학, 경제학, 인류학, 심리학, 무용, 시각예술, 음악은 자주 가르치지 않거나 필수교과로 지정하지 않는가? (중략) 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몇몇 교과를 다른 대안적인 교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교과이므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입증된 교과를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스너

위 기사의 (가)와 (나)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밝힐 수 있다.[2012]

**잭**슨이 사용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관점은 학교를 단순한 교육의 장이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계획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 실천과 환경이 학생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리킨다.

아이스너가 말한 영교육과정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회 교과가 없다면 사회 교과가 영 교육과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필리핀의 역사'가 빠져 있다고 해서 '필리핀의 역사'가 영 교육과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 교육과정은 ①교육적으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면서, ②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③학교가 설정한 교육목적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내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Eduzip *essay*

“듀이에 의하면 교육자의 교과와 학습자의 교과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교과 중심 교육자들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은 논리적 성취하는 무관하며 오히려 반대된다고 간주한다. 그들은 결과로서의 지식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다음 학생들이 이러한 순서대로 교과를 배우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주입식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논지에서 듀이가 말한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을 논할 수 했다.

**듀** 이는 교육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을 통한 경험의 성장 이외의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는 교육이 경험에 의한, 경험을 위한 경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해보는 것(능동)’과 ‘당하는 것(수동)’ 측면의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반성적 경험’이다.

성장은 하나의 경험의 종결이 또 다른 경험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요청하는 것인데 한 개인의 기존경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치면 불연속 된 새로운 경험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사유가 생기고 더 의미있는 삶의 국면으로 들어가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실험이고 ‘당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축적된 된 지식은 이런 교변과정에서 즉각적이고 유용한 실험과 성찰의 도구가 된다.



## Eduzip *essay*

다음은 엄마와 아들의 대화이다. 비고츠키 구성주의 관점에서 상호작용의 의의를 논할 수 있다.

엄마 : 자전거는 어디다 두고 오니?

아들 : 아참, 자전거... 모르겠는데

엄마 : 잃어버렸어?

아들 : 생각이 안나.

엄마 : 오늘 자전거로 간곳이 어딘지 순서대로 잘 생각해봐,

아들 : 여기서 타고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상가 뒷길 문방구에서...

엄마 : 문방구 갈 때 자전거 타고 갔니?

아들 : 아니.

엄마 : 그럼 놀이터에 두고 온 것 아냐?

아들 : 그런 것 같아.

이 사례에서 자전거의 위치를 기억을 해낸 것은 엄마도 아들도 아니고 둘이서 함께 했다는 것이다. 기억과 문제 해결이 둘의 상호작용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들은 다음에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사용할 전략을 내면화 하게 된다.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지식의 본질에 대한 것으로, 학습자의 지식 생산에 있어서 사회적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비고츠키는 학습과 인지발달이라는 인간의 정신적 과정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발달과정을 넘어서는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환경 내에서 유의미한 타인에 의한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교사 : 우리 반 영철이는 IQ가 높아서인지 공부를 참 잘해요. 과목별 점수로 도 영철이가 거의 전교 1, 2등이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나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잘 할 거요.

송교사 : 우리 반 순희는 언어와 수리 교과는 잘 하지만, 음악이나 체육은 재능이 없어 보여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그런 것을 보면 지능이 높다고 뭐든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능력이나 다른 것들도 지 능력에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영역별로 지적 능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강교사 : 영역별 지능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지능이 한 가지 경로로만 발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억력처럼 뇌 발달과 비례하는 능력들도 있지만, 언어이해력과 같은 것들은 문화 환경과 경험에 의해 발달하잖아요.

위 교사들의 견해에 근거가 되는 지능 이론가들을 짚지어 적시할 수 있다.[2011]

**최** 교사는 영철이의 지능을 일반적인 지적능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스피어만의 일반요인(general)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송교사는 순희가 잘하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에 따른 각각의 지능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영역별로 지능이 다를 수 있다는 가드너의 중다지능 이론에 적합한 견해이다.

강교사는 지능의 발달이 기억력과 같은 두뇌 발달이나 문화환경의 경험도 지능의 발달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는 길포드의 지능발달이론과 근접한 견해이다.



“학생들은 학급 홈페이지에 교사가 게시한 학습내용  
수업시간 전에 스스로 학습하였다 교실 수업시간에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그 학습내용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사가 제시한 토의 주제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가장 적절한 학습체제를 적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2007]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란 명칭은 학습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실시간 교실수업과 비실시간  
이-러닝(e-learning)이 혼합된 형태에서 나온 말이다. 즉,  
2가지 이상의 다양한 학습 전략과 방법, 기술들을 결합하여  
학습 환경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학습과정 또는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다양한 전달방법을 결합한 형태의  
학습이라는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 환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존의 전달식 주입식 교육을 초월하여 토론능력, 발표력,  
창의력 함양을 도모할 수 있고 협업의 인성과 발표를 통한  
진취성을 드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산중학교 1학년 수학 담당 김교사는 연구수업을 위한 모듈수업에서 아이들에게 각각 같은 반 30명 전원의 성별, 키와 몸무게 자료를 주고 10명씩 3팀으로, 15명씩 2팀으로 분류하라고 했다.

김교사가 기대하는 학습목표는 아이들이 키, 몸무게, 성별에 따라 3팀과 2팀으로 분류하면서 유목화 개념에 따른 부분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집합에 대한 학습은 중학교에서도 편성되어있지만 이미 초등학교에서도 나왔고 고등학교 수학과목에서도 편성되어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 수준이 달라도 거의 동일한 개념과 범주를 다루고 있고 내용수준이나 다만 표현방식이 다를 뿐이었다.

김교사가 설계한 수업모형을 적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발** 견식 수업에 대한 주어진 사례로는 브루너의 발견학습에서 지식의 구조, 발견의 기쁨, 표현양식에 대한 것과 더불어 발견식 수업의 교사의 역할과 수업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개진 될 수 있다.

교사는 학습대상의 학습수준에 따라 학습주제, 학습목표, 자료 활용법 등을 제시를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발견은 학습자 스스로 해야 한다. 발견학습의 목적에는 ‘발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발견학습의 동기는 역시 발견을 통한 ‘발견의 기쁨’이다. 따라서 발견식 수업의 초기 형태는 발견의 기쁨을 위한 수업으로 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사례에서 집합이라는 학습과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나선형 교육과정은 교과를 가장 완벽한 상태로 가정하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맞춰 동작적, 영상적, 상징적이라는 표현양식을 달리해서 계열성과 계속성과 통합성이라는 원리하게 편성하는 교육과정 모형이다.



홍교사는 다항식의 덧셈을 가르치려고 한다. 지난 주말 두 가족이 놀이공원 입장표를 사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킨 후,  $(3X+2Y)+(2X+Y)$ 를 예로 들면서, ‘미지수가 2개인 다항식의 덧셈을 할 수 있다.’라는 수업목표를 알려 준다. 이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교사는 지난 수업 시간에 가르친 다항식의 개념을 상기해 주면서, 다항식의 덧셈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여 주며 가르친다. (가)부호화(encoding)를 촉진하기 해 문자가 같은 항끼리 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단서를 제공해준다. (나)학생이 다항식 덧셈의 각 단계를 밟아 놀이공원 입장료를 계산하도록 한다. 학생이 입장료를 정확히 계산하면, 그 사실을 확인해 주고, 틀리면 교정해 준다. 학생이 배운 규칙을 이용하여 다양한 다항식 덧셈 문제를 풀도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 (다)마지막으로 다항식 덧셈 절차를 노트에 적어 가며 복습 하고, 배운 것을 다양한 형태의 다항식 덧셈 문제에 일반화하도록 한다. 위 에피소드의 교수활동과 가네의 수업사태의 단계를 (가)~(다)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2013]

**가** 네에게 있어서 수업이란 학습자의 내적 조건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여 내적 학습력에서 변화가 생기도록 학습의 외적 조건을 배열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적조건과 외적 조건은 학습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학습자의 내적과정은 “주의집중-기대-기억으로부터 재생-선택적 지각-부호화-재생, 반응-강화-인출과 강화-일반화”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업사태는 “주의집중 획득-학습자에게 목표 제시-선수학습의 회상-자극 제시-학습안내 제공-학습자 수행 유도-피드백 제공-수행 평가-파지와 전이 증진”이다.

위 에피소드에서 홍교사의 수업지도는 (가) 학습 안내 제시하기, (나) 수행 유도하기, (다) 파지 및 전이 향상시키기에 해당한다.





학 년	3학년		
학습목표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읽기자료, 학습장, 필기도구		
단 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도 입	인구 증가와 자원 이용에 관한 책읽기	5~	읽기자료
전 개	읽은 의 내용을 학생 각자가 요약하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번갈아 가며 질문을 만들고 대답하기 대답에 근거하여 요약을 명료화하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	30~	읽기자료

위는 중학교 사회과 수업지도안의 일부분이다. 이 수업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을 적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2005]

**상** 보적 교수(reciprocal teaching)법은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역할을 교체하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글 이해 방법과 글 내용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전략 사용의 책임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이는 비고츠키의 교수란 학생의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상보적 교수법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의 각 부분에 대해 참여자들이 서로 논의의 주도권을 교환하면서 대화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질문, 요약, 예측, 명료화의 네 가지 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상보적 교수법의 예를 들 수 있다.

- 학생이 읽은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명료화하고, 후속 내용을 예측하게 한다.
- 과제의 난이도와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의 주도권이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점진적으로 옮겨가게 한다.[2008]



다음은 우리나라 수능점수 통지표의 일부이다. 이 통지표를 보고 이 학생의 각각 영역의 석차를 계산할 수 있다.

3.78)	(21.04)	(16.67)	(11.15)	(6.41)	(3.17)
기타 참고 자료			영역의 합		
영역	산출방법	백분위	인원수	백분위 변화	
국+수		92.60	403080	영역	국+수
국+탐		91.99	399288	날짜	
수+탐		98.11	399354	3.10	-
국+수+탐		95.74	399077		
탐구영역(2) 과목		96.68	395360	-	-

수능 성적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등급점수 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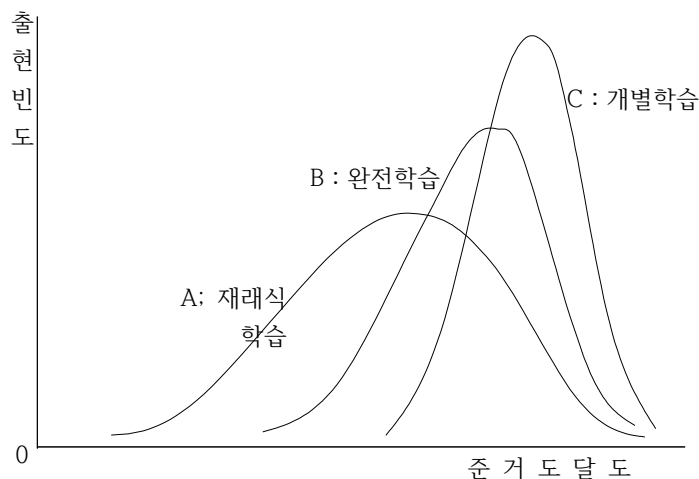
학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고교 (반 또는 졸업)	
과목	한국사 영역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과학탐구 영역	
			가형	영어 영역	물리 지구 과학
표준점수		140	126		66 67
백분위		99	96		97 98
등급	1	1	1	1	1

표준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백분위 점수는 전국 상위%를 알려준다. 위 성적표상의 국어영역은 상위 1%라는 뜻이고 이를 구간별 비율에 따라 9등급의 점수로 표시한 것이 등급점수이다.

주어진 문제의 국+수+탐 백분위는 상위 4.26%이다. 응시자 대비 비율로 보면  $399,077 \times 0.0426 = 17,000$ 로서 17,000등위를 차지했다.



다음 그래프는 동질의 3집단을 학습방법을 달리하고 평가한 분산도이다. 개인교습(C집단)을 받은 학생의 평균 수준은 전통적인 방식(A집단)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의 상위 2% 수준과 같다. 따라서 준거지향 평가를 했을 때 C집단의 성원들의 성취는 대부분이 준거에 도달했으나 A집단의 대부분은 준거에 미달하여 학습에 실패했다. 한편 기준지향 평가를 했을 때의 이 분산도에 의한 평가 결과를 논할 수 있다.



**규** 준지향적 평가는 개인의 성취 수준을 비교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 상대적 서열을 판단하는 평가형태이다. 대부분의 경우 규준은 집단의 평균이고 상대적 위치는 편차(표준편차)로 산출한다. 따라서 위 분산도로 기준지향 평가를 했을 때 A집단의 중간정도의 학생과 C집단의 중간정도 학생의 성적은 평균에 해당하므로 동일하다. 즉 학습목표의 준거치를 통과한 C집단의 학생이 준거치의 50%를 통과한 A집단의 학생과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윤리적 입장에서 인간의 생명과 관계되는 자격증의 수여를 위한 평가에서는 평가대상자의 상대적 위치가 아닌 준거도달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고 선발을 위한 평가는 기준지향 평가를 활용한다.



다음은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의 내용 체계이다. 이 표를 통해 중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를 추출하고 더불어 초·중·고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의 목표를 논할 수 있다.

영역	내용요소
나의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 진로, 직업의 의미</li> <li>• 나의 특성 탐색</li> <li>• 나에게 적합한 장·단기 진로의 탐색</li> </ul>
직업 세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세계의 다양성과 미래의 직업 세계</li> <li>• 직업 세계 탐색의 방법</li> <li>• 직업과 관련한 편견 및 고정관념의 극복</li> </ul>
진로의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학교 이후의 교육 경로 탐색</li> <li>• 잠정적인 진로에 관한 정보의 탐색·분석</li> <li>• 다양한 직업인의 역할 모델 탐색</li> <li>•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조건과 직업윤리</li> </ul>
진로 의사결정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의사 결정의 방법 및 자기 책임감</li> <li>• 나의 희망 진로·직업 선택 및 탐색</li> <li>• 중학교 이후의 구체적인 진로 계획의 수립</li> <li>• 진로 계획 실천과 평생 학습의 의미</li> </ul>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체계에서 초·중·고의 목표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진로의식 형성, 중학교에서 진로탐색과 기초진로설계 및 준비, 고등학교에서 진로설계 및 준비와 구체적 진로탐색으로 되어있다.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은 4개의 영역과 14개의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내용은 ‘자신과 직업 및 교육 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과 체험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진로·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한다.’는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선정·조직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중학교 「진로와 직업」 과목은 ‘진로와 직업의 의미 이해→자신의 특성의 탐색→직업세계의 폭넓은 탐색→중학교 이후의 교육 경로를 포함한 진로의 탐색→자신의 진로의사결정 및 계획’의 순차성을 가지고 조직된 것이다.



다음 사례는 상담 중에 ‘왜’라는 질문을 피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상담에서 상담자가 질문하는 방식과 피해야 하는 질문에 대하여 논할 수 있다.

상담자 오늘 수업시간에 ‘왜’ 안배에게 이야기를 했지?

내담자 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안배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상담자 하지만 나는 오늘 수학 시간에 네가 그 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는데.

내담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나는 그저 그에게 좀 물어보려고...

상담자 아니야, 너를 야단치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려는 것뿐이야. 너도 알다시피 그 애가 우리 반으로 전학온 후로 너희는 쭉 그 애를 무시해 왔잖니? 그래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질**문이 내담자의 자기 탐색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한다면 효과적인 질문이다. 질문은 내담자에게 자기 탐색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가 이끌어 주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내담자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으로 내담자는 여태껏 살아온 타성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부분과 그것을 검토하고 수정하려는 부분 간에 내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에 질문은 가능한 한 개방적, 단일 질문, 간접적인 질문일수록 좋다. 또 ‘왜’라는 질문, 이중질문, 질문공세는 피하고 질문을 한 후 답변을 재촉하지 말고 질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송 장학사는 A중학교의 학교경영 컨설팅 의뢰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현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A중학교는 ㉠교장과 교사가 서로 신뢰하며 존중 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고, 업무 능력도 탁월했다. 또한 ㉢교사들의 관계도 좋은 편이었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하는 업무들은 구조화·체계화되어 있었고, ㉤교장이 교사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권력 수는 낮은 편이었다.

송 장학사의 진술에서 피들러(Fiedler)의 상황 지도성 모형에 근거할 때, ‘상황’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를 통해 교장의 적절한 지도성 유형에 대해 논할 수 있다.[2013]

**피**들러(F. Fiedler)의 상황 지도성 모형은 리더십 유형을 근본적으로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써 동시에 과업지향적일 수도 있고 관계지향적일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리더는 자기의 리더십 유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도성의 상황요소는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 ‘집단의 과업구조화 정도’, ‘리더의 직위권력’이다. 즉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가 좋으며 집단의 과업구조화 정도가 높고 리더가 직위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조직 내에서 리더의 입장과 상황이 가장 유리하다.

상황지도성 모형은 상황호의성이 중간정도 일 때에는 관계지향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최적이고, 상황의 아주 호의적이거나 또는 비호의적일 때에는 과업중심적 리더십 스타일이 최선의 성과를 가져다준다고 본다.

따라서 송장학사의 진술 중에 상황요소인 ㉠, ㉡, ㉤을 볼 때, 평가는 “좋은-고-약”으로 높은 수준(8가지 상황 중 2번째)의 호의적 상황이다. 피들러는 이러한 정도의 상황에서 적절한 지도성은 ‘과업중심 스타일’이라고 본다.



“동산중학교는 해마다 수학 여행지를 결정함에 있어 교장 선생님의 교육적 직관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신임 교장은 교감을 비롯한 해당 담임에게 위임했으나 특별한 토론이나 숙의가 없이 있다가 막상 시일이 다치자 몇몇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오가다가 결국 가장 무난한 제주도로 결정이 되었다.”

위 기사에서 교장의 지도성을 적시하고 성명할 수 있다.

의사결정이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개발하고 그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보통은 당면과제의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해 대안의 탐색한 후 합리적 대안이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동산고등학교의 수학여행지 결정이 그동안 규범적 성격의 모형인 최적화 모형에 기반 한 면이 있다. 그러다 새로 부임한 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들의 의사결정은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느슨한 의사결정 체제에서 관여도가 높은 몇몇 선생님들의 혼란스런 소통을 거친 후에 우연히 결정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에 가깝다.



올해 9월 A중학교에 부임한 김 교장은 금년도 예산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교직원 회의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김 교장은 이에 근거하여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한 예산편성 기법을 적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2009]

**영** 기준 예산제도(ZBBS)는 과거의 예산이나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설정코자 하는 사업을 새로이 평가하고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한 번 책정된 예산이 줄어들지 않아 생기는 예산의 비대화 및 방만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예산 작성이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동산중학교 장학협의회는 새학기 교내 자율장학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이와 같은 개요도를 보고 개별교사들의 발전 수준과 장학 선택의 원리를 논할 수 있다.

기본 형태	활 동 형 태	대 상 자	장학 담당자
수업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장학</li> <li>· 수업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임교사 및 경력4년 미만 교사</li> </ul>	교장, 교감, 장학사
동료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년 협의회</li> <li>· 교과연구회</li> <li>· 동료간 수업 연구</li> <li>· 초임교사 대상 동료장학</li> <li>· 동호인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학년 교사</li> <li>· 동교과 교사</li> <li>· 교과연구회 교사</li> <li>· 동호인 교사</li> </ul>	학년 부장 교과 협의회장 동료 교사
자기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수업반성</li> <li>· 1인1연구</li> <li>· 대학원 수강</li> <li>· 연구논문</li> <li>· 자료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교사(20년 이상)</li> <li>· 부장교사</li> <li>· 대학원수강 교사</li> <li>· 현장연구 교사</li> <li>· 자료전 출품교사</li> </ul>	교사 개인
약식 장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급순시</li> <li>· 수업참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교사</li> </ul>	교장, 교감
자체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교내 연수회</li> <li>· 지구별 자율장학 연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교사</li> </ul>	연구부장 전체 교직원

교내 자율장학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과 학교의 교육력 제고하여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 교내 자율장학은 수업장학, 약식장학, 동료장학, 자기장학, 자체연수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면서 저경력 교사와 고경력 교사의 협동, 신규교사 장학지도 프로그램을 마련, 지구별 자율 장학과 연계, 수업 공개의 날과 연수의 날 운영 등을 운영원리로 한다. 이러한 운영 원리하에서 교사들의 추상수준과 참여도 등의 발전 수준에 맞춰 장학의 유형을 선택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다.

한 | 1 | 학

education zip

education zip

한글교육도